

## 1970년대 한국범죄소설과 살인하는 여성들

정혜영\*

### 요약

1978년의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 지위 향상의 사회적 욕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이 시기, 여성을 살인범죄자로서 다룬 세 편의 소설이 동시에 발표된다. 범죄소설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살인범죄자로서 여성의 등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이 살인 범죄라는 극단적이며, 치명적 행위의 주체자로서 소설에서 등장한 것이, 서구 소설사에서는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설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지위 향상의 시대적 요청과 여성 살인범죄자 등장이라고 하는 범죄소설에서 발견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소설 붐이 일어나고 있던 1970년대 말 여성을 살인범죄자로 하여 발표된 세 편의 범죄소설-『화요일 밤의 여자』, 『부랑의 강』, 『갈 수 없는 나라』-를 대상으로 ‘여성의 분노’의 동기와 이유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 범죄소설에서 여성들은 왜 살인에 이를 정도로 분노한 것일까. “범죄 자체가 하나의 반항의 소리”라고 한다면, 이 여성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 범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점에 대하여 ‘반항의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 주제를 앞서 유현종의 「화요일 밤의 여자」,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김성종의 「부랑의 강」 세 편의 범죄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현종과 조해일의 소설에 더하여 김성종의 소설에서도 여성은 근원적으로 무지하거나, 방탕한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당대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연결되지 못한 채 언제나 그 여성인물들이 지닌 생략적 광기의 소산으로서 귀결되게 된다. 여성에 대한 이들 세 남성 작가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이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가 어렵다. 일단은 이들 남성작가들이 -조해일 경우 『겨울여자』에서 여성의 새로운 성모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추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위계질서에 기반한 폭력적 군사문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세계로 스며들어 내면화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주제어: 고도 경제성장, 여성의 지위 향상, 『화요일 밤의 여자』, 『부랑의 강』, 『갈 수 없는 나라』, 여성살인범죄자, 범죄소설, 여성의 분노, 가부장적 유교의 데올로기, 남성중심적 군사문화

## 목차

1. 서론
2. 1970년대 한국 사회와 '범죄소설'에 대한 再인식
3. '반항의 소리로서의 범죠편'과 여성의 살인
4. 위기의 남성들, 분노하는 여성들
5. 결론

## 1. 서론

1978년의 한국은 눈부신 고도성장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함께 일어난 이율배반적 시기였다. 1978년 전 세계를 휩쓴, 제2차 오일쇼크가 한국에도 불어 닥쳐 그해 말부터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급속하게 상승하고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그러나 그해, 한국은 지속적 경제개발의 결과, GDP 성장률이 9.7%에 달하는 등 경제성장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고도의 경제성장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율배반적 현상은, 단지 경제적 상황을 넘어서 여성과 관련해서도 발견되고 있었다.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 지위 향상의

사회적 욕구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이 시기, 『화요일 밤의 여자』(1978), 『갈 수 없는 나라』(1978), 『부랑의 강』(1979) 등, 여성을 살인범죄자로서 다룬 세 편의 소설이 거의 시간적 차이를 두지 않고 발표된다.<sup>1)</sup> 범죄소설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살인범죄자로서 여성의 등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이 살인범죄라는 극단적이며, 치명적 행위의 주체자로서 소설에서 등장한 것이, 서구 소설사에서는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설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 말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발견되는 이율배반적 상황, 즉 여성지위 향상의 시대적 요청과 여성 살인범죄자 등장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근대범죄소설에서 여성이 살인범죄자로서 등장한 것은 1927년 최독건의 범죄소설 「난영(亂影)이 거의 최초로 추정된다.<sup>2)</sup> 「난영(亂影)에는 남편을 비롯하여 모두 5명에 달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여성, 연쇄살인범이 등장한다. 「난영(亂影)의 발표 3년 전인, 1924년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한 죄로 재판에 기소된 김정필 사건이 발생하여 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김정필 사건을 전후하여 이 시기 언론에는 남편살해사건 관련 기사

1) 안혜연은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인 박완서의 『욕망의 응답』(1979), 김성중의 『부랑의 강』(1979), 하원의 『회색수업』(1985)을 대상으로 “여성들에게는 완벽한 내조라는 명목하에 집안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의 노동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며 세속적인 표상을 떠넘기고, 남성들에게는 정신적 숭고함을 부여하고, 도덕적 우월감을 제공하”는 왜곡된 서사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 경우, 1970, 80년대 범죄소설 속 여성의 이미지에 주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박완서의 「욕망의 응답」의 여성등장인물을 과연 살해자로서 명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 그리고 이들 여성 분노를 여성의 지위라든가, 권리와 관련한 당대 사회적 현실 및 움직임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안혜연, 「정상가족’ 만들기와 아내들의 자리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여성범죄자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2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3, 37-67면)

2) 식민지 시기 범죄소설에 나타난 여성연쇄살인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혜영이 다룬 바 있다. (「1920년대 조선과 연쇄살인범으로서 여성의 등장 —최독건의 「난영(亂影)」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3),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53-179면)

가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었다.<sup>3)</sup> 이 상황을 반영하듯 조선 거주 일본인 의사 구도 다케키가 ‘조선특유의 범죄’로서, 조선 여성의 남편살해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1920년대 「난영(亂影)」의 여성연쇄살인범 등장, 조흔과 강박결혼이 일상화되어 있던 1920년대 조선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혼인과 관련한 전근대적 구습이 이미 사라진, 1970년대 말의 한국 범죄소설에서 여성이 갑작스럽게 잔혹한 살인범죄자로서 등장한 것은 의외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렇다면 이미 전근대적 혼인의 구습이 사라진 1970년대 말 한국에서 여성을 살인범죄자로 설정한 소설이 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일까.

적어도 현실에서 1970년대 말, 더 관대하게 잡아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 살인범죄자의 비율이 급증했던 것도 아니었다. 일단 1960년대와 70년대 실질적 여성범죄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전체 형법 범죄의 여성범죄 비율이 1968년에는 12.6%였던 것이, 1970년에는 12.1%, 그리고 1975년에는 12.3%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sup>5)</sup> 실제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연쇄살인을 자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00년을 넘어선 시기였다. 그런 만큼, 1970년대 말 발표된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이 공통적으로 살인범으로 설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3) 최애순이 방인근 소설 「마도의 향불」을 분석한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남편살해사건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애순, 「식민지 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와탈의 탄생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한국학』 3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65-191면, 참조.

4) 1970년대 범죄소설 관련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1970년대 범죄소설 붐과 사회적 관계 맥락을 다룬 안혜연의 논문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 범죄소설 붐과 그 사회적 맥락」, 『인문과학연구』 25,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22, 193-234면)이 있으며, 이외에는 최애순의 논문 (「1970년대 동정적 범죄자와 법적 처벌 문제 —김성중의 단편소설과 장편 『최후의 증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8, 현대문학이론학회, 37-72면)과, 최애영의 논문 (「김성중의 『제5열』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대중서사연구』 23, 대중서사학회, 2010, 125-158면)등이 있다.

5) 김정현, 「60년대 범죄행위의 비율」, 『새가정』, 1970, 6, 107면.

6) 유현종의 『화요일 밤의 여자』, 조혜일의 『갈 수 없는 나라』, 김성중의 『부랑의 강』 세 편 이

도대체 1970년대 말이라는 특정 시기 발표된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이 살인이라고 하는 치명적 강력범죄의 실행자로 설정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달리 말하자면 1970년대 말 한국사회의 여성과 관련한 변화, 즉 어떤 사회적 맥락이 여성을 살인범죄자로서 불러낸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잔혹한 살인 범죄자로서 여성 인물을 설정한 것이 모두 남성 작가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탐색은 당대 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 및 지위와 관련한 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1970년대 한국 사회와 ‘범죄소설’에 대한 再인식

1972년 〈한국 미스터리 클럽〉이라는 명칭의 독특한 모임이 결성되어,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끈다. 이들은 ‘범죄소설을 애독’하는 친목회 수준의 단순한 모임일 뿐이라 칭하지만, 친목회라고 말하기에는 모임의 구성원들의 면면이 상당히 독특하다. 일단 모임의 회장을 맡은 이가형을 비롯하여, 부회장을 맡은 황중호 등은 제각각 중앙대 영문학과, 성균관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영문학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여기에 영화평론가, 오리온 제과 사장, 서울대 학생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sup>7)</sup> 이들은, 범죄소설 ‘外書’ 원서를 함께 읽을 정도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한국에 진정한 범죄소설이 없음을 개탄’할 정도로 범죄소설에 나름 정통해 있었다. 결성 2년 후, 범죄소설 전문 연구지

---

외 박완서의 『육방의 응달』(1979)역시 여성이 살해범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경우, 살해라기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가까웠으며, 가해자 여성이 살해를 자행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분노라거나 증오의 감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배제하려고 한다.

7) 이 잡지는 이가형, 황중호, 이근철, 이근삼 등 영문학과 교수들, 그리고 오리온 제과 사장, 대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인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활기 띠는 추리문학」(『조선일보』, 1975.11. 8.)을 참조했음.

인 『Mysery』를 발행한 것을 보면, 범죄소설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을 짐작 할 수 있다.<sup>8)</sup> 『Mysery』는 2호를 끝으로 더 이상 출간되지 않지만, 이를 떠나 이 모임은 존재 그 자체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범죄소설 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sup>9)</sup>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건전과 명망을 강조하며 그 이면에서 반공과 위계에의 순응을 강요”하는 엄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던 반면, “청년으로 성장한 해방 이후 세대와 대로 성장한 베이비 붐 세대가 새로운 대중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196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대 지평을 형성하고 있었”<sup>10)</sup>다. 1960년대 말부터 세계적 범죄소설을 모은 범죄소설 전집이 한국의 여러 출판사에서 속속 발간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파이소설’을 포함한 범죄소설,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일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고<sup>11)</sup>, 이 문화적 흐름은 북한과 대립한 분단국가이면서,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과 부합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1965년 피카디리 극장에서 『007 살인번호』가 개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추리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한껏 고양시키고 있었다.<sup>12)</sup> 그렇지만 1960년대

8) 『Mysery』는 1호는 1974년 12월에 발행된다. 1호, 즉 창간호 발행 9개월 후인 1975년 9월에 2호가 발행된다. 이 잡지에는 회장 이가형을 비롯하여, 황종호 그리고 범죄소설가 현재훈이 주된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9) 이 점에서 1970년대 “범죄소설의 붐은 새로이 일상생활을 파고들어온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혹은 선데이 서울 등의 유희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희의 모색으로 해석된다”는 최애영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최애영, 「김성종의 제5열-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대중서사연구』 23, 2010, 136면)

10) 박우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2012, 55면.

11) 1963년 8월 6일자 조선일보에는 「세계를 휩쓴 ‘미스터리 붐’이라는 제명의 기사가 게재되어, 전세계적 범죄소설 붐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 추리작가 메리 로렐의 말을 빌려서 ‘도피소설’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후, 이 하위 범주에 범죄소설, 모험소설, 로맨스 소설, 역사소설, 공상과학 소설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 (「세계를 휩쓴 ‘미스터리 붐」, 『조선일보』, 1963. 08. 06.)

12) 007시리즈로는 최초로 영화화된 《DR NO》가 1962년 런던에서 개봉된 후, 《007 살인번호》

중반 시작되어, 1970년대 한국 사회를 휩쓴 범죄소설 붐을 이처럼 외적 자극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경제개발, 분단현실에 더하여, 소위 10월 유신으로 명명되는, 암흑한 정치적 현실이 1970년대 한국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 점에서 〈한국 미스터리 클럽〉을 이끈 이가형 교수의 사설, 이가형 교수의 글에 대한 평론가 정창범의 사설, 그리고 작가 곽학송의 범죄소설 관련 사설은 한국 범죄소설 붐의 또 다른 원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근자에 일본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붐’은 〈미스터리 붐〉은 〈범죄소설〉을 신지 않은 잡지가 드물 정도로 대단하다. 일본은 서양의 탐정소설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하더니 〈추리작가〉가 이제들 속출하여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미스터리」는 민주국가에서 번창한다고 주장하는 외국의 평론가들의 의견은 과연 정말인가? 법과 질서가 엄연히 유지되어 있고 인권이 극도로 존중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스터리」가 번창한다는 것은 정말인가? 그리고 혼돈과 무법 속에서 하루하루가 공포와 절망의 연속인 나라에 있어서는 「미스터리」문학은 고개를 들 참이 없다는 것은 정말인가? 요컨대 민주주의가 연천(年淺)한 한국에서는 「미스터리」문학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sup>14)</sup> (밑줄 논자)

(2)“민주주의가 연천한 한국에서는 「미스터리」문학은 엄두조차 내지

---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1965년 한국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된다. 이 영화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으로 소설가 곽학송은 “007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엄정한 의미에서의 범죄소설이 아니며, 그 성행은 일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곽학송, 「범죄소설과 주변 얘기」, 『동아일보』, 1966. 03. 24.)

13) 최에영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범죄소설 붐과 관련해서 “이 시대에 일기 시작한 범죄소설의 붐은 새로이 일상생활을 파고들어온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혹은 선데이 서울 등의 유희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희의 모색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에영, 앞의 논문, 136면)

14) 이가형, 「〈미스터리〉에의 초대」, 『동아일보』, 1966. 02. 17.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고 영문학자 이가형씨는 본지의 「書畧餘話」에서 쓰고 있다. 「미스터리」 독자로서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미스터리」 작품 하나 없음을 한탄하여 그 까닭을 민주주의의 성숙이 곧 「미스터리」의 성립 요인이 되는지 여부는 표  
置하고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엿한 「미스터리」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sup>15)</sup>(밑줄논자)

(3)범죄소설은 범인과 탐정, 경찰의 대결이 흥미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선 거의 용의자 즉, 범인으로 단정되기 때문에 삼자 독자의 관심을 요하지 않는다. 얼핏 이는 경찰에 대한 무작정 신임을 말해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은 관여할 ‘능력’이 없는데서며, 그 ‘능력’이란 바로 범죄소설의 이해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 범죄소설은 美英佛그리고 일본 등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행하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독재국가에는 존재치 않으며 독일, 스페인 등 독재주의의 뿌리가 박혔던 사회에선 신성한 개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sup>16)</sup> (밑줄논자)

이가형은 「미스터리애의 초대」라는 제명의 사설에서 ‘미스터리애는 민주 국가에서 번창한다’며 미스터리 소설의 성립을 민주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외국 평론가’의 의견이라는 단서를 다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이 의견이 맞는가’를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묻는 형태로 글을 진행하며, 5.16 직후, 군사정권 시대의 엄혹한 정치적 검열을 피해간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한국에 제대로 된 미스터리 작품이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연천(年淺)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가 부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일갈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는다. 사설 게재 2년 전인, 1964

15) 정창범, 「범죄소설과 우리의 여건-이가형 씨의 「미스터리애의 초대」에 덧붙여」, 『동아일보』, 1966. 02. 22.

16) 광학송, 「범죄소설과 주변 얘기」, 『동아일보』, 1966. 03. 24.

년 6월 3일, 정부가 추진하던 한일교섭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발포하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 1965년 마침내, 전국 교수 300명이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삼 백 명에 이가형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1966년 앞의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미스테리’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킨 이가형의 의중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가형의 사설이 게재되고 불과 5일 후, 평론가 정창범이 ‘이가형 씨의 『미스테리에의 초대』에 덧붙여’라는 부제를 단 사설을 게재하며, 미스테리, 즉 범죄소설과 민주주의 성립 간의 연관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번에는 소설가 곽학송이 ‘독재’라는 직접적 단어를 활용하여 ‘독재주의의 뿌리가 박혔던 사회’에서는 범죄소설은 ‘개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리 문학 성립 척도로서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를 거론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가형이 ‘미스테리 성립’과 관련해서 제시한 ‘한국 사회의 비민주성’의 문제를 정창범과 곽학송이 바로바로 받으면서 한국사회의 비민주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외형적으로는 미스테리, 혹은 범죄소설 성립 요인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1960년대 말 제3공화국 아래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 상황 비판에 논의의 핵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범죄소설(미스테리)에 대한 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오로지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던 것만은 아니었다. 범죄소설과 민주주의 간의 문제를 최초로 제시한 이가형의 경우, 추리 문학 읽기 동호인회를 결성하고, 직접 범죄소설을 창작<sup>17)</sup> 할 정도로 범죄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가형을 비롯하여 1960~70년대 한국 엘리트들이 열광한 범죄소설 경우, 한국 범죄소설의 기원을 이룬, 김내성 범죄소설과도 명확하게

17) 이가형은 아가사 크리스티 범죄소설 번역을 비롯하여, 1970, 80년대 범죄소설 번역의 대부분을 일컬어진 인물로서, 실제로 「비명」 등의 범죄소설을 창작하기도 했다.

차별화된 것이었다. ‘탐정문학’으로 명명되던 김내성의 범죄소설은 식민지 시기, 그것도 전시체제라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제국 일본 범죄소설의 영향, 이 두 요소를 배경으로 성립된 탓에 인간 내면의 그로테스크한 이면, 혹은 변태적 욕망에 집중하거나 스파이 탐색의 방첩소설로 귀결되는 등, 시대 현실과 철저히 유리되거나, 체제 순응적 특색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이에 반해, 이가형의 사설이 발표된 1960년대 중반을 거쳐, 197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를 휩쓴 범죄소설 붐의 범죄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변태적 심리’ 탐색이라거나 ‘추론에 기반한 고전적 범죄소설’과 달리 1979년의 한 논설에서 언급하듯, “범죄 자체가 하나의 반항의 소리”<sup>19)</sup>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걸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와 같은 한국의 새로운 범죄소설에서는 변태적 심리 탐색이 사회비판 탐색으로 대체되고 있었고, 합리적 추론과정이 소설의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사회 부조리 탐색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1960~70년대 한국 범죄소설의 이와 같은 특징은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이라든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처럼, ‘사회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 등을 파헤친’ 일본 사회파 범죄소설이 당시 한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점은 1970년대가 끝나갈 무렵인, 1979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뿌리 내리는 추리문학」이라는 제명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의 외국 범죄소설은 흥미 위주에서 벗어나 문학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진지한

18) 식민지 조선 탐정문학을 대표한 김내성의 소설이 방첩소설(「매국노」, 「태풍」) 혹은 그로테스크하고 변태적 욕망 탐색으로 귀결된 것은 일본탐정문학의 영향과 더불어, 정치적 발언이 불가능했던 조선작가로서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정혜영의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 275-302면)와 「김내성변격탐정소설과 환상의 영역」(『국학연구론총』 29, 2022, 241-263면)을 참조하였음.

19) 「뿌리내리는 추리문학」, 『동아일보』, 1979. 12. 12.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한 후, 미국에서 『87 분서(分署) 시리즈』 등 경찰소설<sup>20)</sup>이 인기를 끌고, 일본에서 마쓰모토 세이초의 『점과 선』, 『제로의 초점』,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과 같은 사회파 범죄소설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 점을 사례로 들며, 최근 한국에서는 유현중, 조해일의 범죄소설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이 기사는 흥미롭게도 이 언급에 이어 1966년 이가형의 발언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민주국가가 아니면 범죄소설이 발전하기 어렵다”<sup>21)</sup>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1960~70년대의 한국에서, 범죄소설은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의 범주를 넘어, 민주사회 성립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비판 소설로서 수용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한 작가로서 주로 제시되는 것아-앞의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 유현중과 조해일로서 그들의 소설을 통해 일본 사회파 범죄소설의 대표적 작품이자, 한국 서점 베스트셀러였던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과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사회비판이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만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 살인 범죄자, 말하자면 살인 범죄자로서 여성의 등장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마쓰모토 세이초, 모리무라 세이초의 앞서 언급한 소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유현중, 조해일, 그리고 김성중의 범죄소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한국 범죄소설에서 여성들은 왜 살인에 이를 정도로 분노한 것일까.<sup>22)</sup> 이가형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소설에 대한 1960년대 말 한국 지식

20) 『뿌리 내리는 범죄소설』, 『동아일보』, 1979. 12. 12.

21) 『뿌리내리는 추리문학』, 『동아일보』, 1979. 12. 12.

22) Caroline Reitz는 『Female Anger in Crime Fiction』에서 여성중심 범죄소설을 중심으로 분노의 윤리성과 효과를 탐구하며, 분노는 언제 정당하며, 언제 복수이며, 언제 광기인가라는 질문 아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성에게 분노가 적절한 감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Caroline Reitz는 *Female Anger in Crim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본 연구에서는 Caroline Reitz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여성의 ‘분노’의 근원을 탐색하려고 한다.

인들의 태도는 197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바, 이들의 주장처럼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범죄 자체가 하나의 반항의 소리”라고 한다면, 이 여성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 범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점에 대하여 ‘반항의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일까.

### 3. ‘반항의 소리로서의 범죄’와 여성의 살인

한국문학계에서 1978~79년은 범죄소설 붐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던 시기이다. 일단, 하서 출판사가 1977년 총 20권의 『세계추리문학전집』을 발행하고, 일 년 후(1978) 다시 『하서추리선서(河書推理選書)』 총 32권을 출판한다.<sup>23)</sup> 그리고 1978년 유현종의 『화요일 밤의 여자』를 시작으로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김성종의 『부랑의 강』 등의 주목할 만한 범죄소설이 연이어 발표된다. 이 중, 김성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소설과는 무관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이다. 유현종은 동학농민전쟁을 다룬 『들불』(1972)을 시작으로 역사소설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조해일은 여성의 새로운 성 모형을 다룬 『겨울여자』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처럼 각각의 방식으로 1970년대 한국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던 유현종, 조해일은 왜 하필이면 범죄소설이라는 낯선 장르에 손을 댄 것일까.

---

23) 1978년 하서출판사에서 발행된 『하서추리선서(河書推理選書)』는 총 32권이다. 향후 ‘백 권을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포부를 밝히기는 하지만, 결국 간행된 것은 총 40권이였다. 1978년 간행된 32권 경우, 1977년 간행전집의 작품과 중복되는 작품도 있고 새로운 작품도 있다. 당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마쓰모토 세이초, 모리무라 세이초의 작품은 물론, 에도가와 란보라든가 요코미즈 세이시 등 1920~30년대 일본범죄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첨가된 반면, 한국범죄소설은 현제훈의 작품 두 편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한국범죄소설의 기원이 되는 김내성을 비롯하여, 방인근, 그리고 1970년대 범죄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김성종의 작품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전집 기획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된다.

여기에는 한국 독서계를 강타하고 있던 마쓰모토 세이초와 모리무라 세이치 등의 일본 사회파 범죄소설의 영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사회파 범죄소설이란, 전후 일본에 등장한 새로운 범죄소설의 형태로, 범죄사건의 단순한 해결을 넘어 부조리한 사회비판과 고발 등, 현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그 개척자로서 거론되는 작가가 마쓰모토 세이초이다.<sup>25)</sup> 마쓰모토 세이초 소설의 특징을 일컬어 무엇보다도 “사건과 등장인물의 압도적 리얼리티”<sup>26)</sup>에 있다는 후대의 평가에서 나타나듯, 마쓰모토 세이초는 “범죄소설의 2대 테제”를 ‘범행동기와 사회적 배경’에 두고 있었고<sup>27)</sup> 이와 같은 마쓰모토 세이초 류의 ‘사회파 범죄소설’은, 사회비판에 중심을 두고 있던 유현중, 조해일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던 듯하다. 특히 이들 두 작가의 범죄소설과 김성종의 『부랑의 강』이 살인범=남성의 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던 그때까지의 범죄소설과 달리 여성을 연쇄살인범 혹은 모성까지도 제거한 냉혹한 심성의 범죄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설정을 담은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과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의 영향을 떠올릴 수밖에

24) 최초의 여성범죄소설가로 명명되는 권경희는 1991년 『계간 추리문학』 주최, 제1회 김내성 추리문학상 공모에 당선된 후, 인터뷰에서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을 좋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리무라 세이치의 작품이 번역되고, 한국 엘리트들에게 선호받던 것이, 1970년대 중반, 이 시기로부터 거의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범죄소설 작가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예서는 그 영향력을 읽을 수 있다. (『국내 첫 여성범죄소설가 권경희 씨 화제』, 『동아일보』, 1990. 4. 23.)

25) “세이초와 그의 작품을 누가 최초로 누가 최초로 사회파라고 명명한 것인가는 정확하지 않다. 요미우리 신문 1960년 ‘문예시평’에서 “탐정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사회파라고도 명명할만한 것이 눈에 띈다. 마쓰모토 세이초가 그 개척자이다.”라고 아라 마사히토(荒正人)가 쓰고 있는데 이 말이 가장 빠른 출처일 것이다. (郷原宏, 『清張とその時代』, 双葉社, 2009, 272면)

26) 郷原宏, 『清張とその時代』, 双葉社, 2009, 271면.

27) 고히라 히로시(郷原宏)는 『세이초와 그 시대』에서 마쓰모토 세이초가 사회파 추리소설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1958)을 두고 “범행의 동기와 「사회적 배경」이라는 사회파 범죄소설의 2대 테제는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郷原宏, 『清張とその時代』, 双葉社, 282면.)

에 없다.<sup>28)</sup>

『제로의 초점』과 『인간의 증명』에 등장하는 두 여성 살인범죄자, 무라타 사치코와 야스기 교코는 현재는 지역 상류층 인사의 아내로서 존경받고 있지만, 과거 미군 접대부 이력을 지닌 인물들로, 이 이력이 족쇄가 되어 마침내 살인이라는 치명적 행위에 이르는 인물이다. 패전 후 일본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삶을 향한 강인한 열정을 지니고 있던 두 여성을 과멸로 이끌고 간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말 한국 범죄소설의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회적 현실로 인해 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것일까. 그녀들의 살인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은 세 편 범죄소설 속 살인에 이르는 여성들의 심리가 ‘불의를 막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분노의 활용’(anger’s uses for preventing injustice and pursuing justice)<sup>29)</sup> 즉, 정의로운 분노인지, 살인적 광기인지(righteous anger and murderous madness)를 판별해내는 것이면서, 일본 사회와 범죄소설의 단순한 차이를 넘어 한국사회를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한국 특유의 범죄소설의 성립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물론 이들 세 편 범죄소설에 대한 당시 언론의 광고 문구 - 예를 들자면 ‘부유층 2세들의 방종한 생활과 복수극’(『갈 수 없는 나라』), ‘여대생과 중년 신사의 사랑’(『부랑의 강』), ‘여의사 남편의 의문스런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협박과 추적과 사랑의 갈등’(『화요일 밤의 여자』 『화요일 밤의 여자』) - 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가형 등이 ‘범죄소설을 민주주의의 성숙도 척도’로서 연결시키고 있었다고 해도, 당시 사회에서 범죄소설은 여전히 “서양적인 무협지 정도”<sup>30)</sup>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세 편 범죄소

28)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에서는 여주인공이 미군대상 접대부 이력을 숨기기 위해 연쇄살인을 자행하고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에서는 자신의 현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살해하는 비정한 어머니가 등장한다.

29) Caroline Reitz, *Female Anger in Crim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p.3.

30) 「범죄소설, 한국학분야문고 인기」, 『경향신문』, 1978. 5. 10.

설 역시, 과도한 정사 장면, 남성과 여성 성기의 저급한 묘사 등 맥락도 없이 등장하는 성적 묘사의 범람 탓에 B급 에로물을 넘어서기 힘든 부분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세 편 범죄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왜 살인이라는 파괴적 결말로 도달하는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이들 살인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범죄소설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사회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유현종의 『화요일 밤의 여자』(1978)를 비롯한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은 주인공 혹은 주인공과 함께 사건의 서사를 형성하는 핵심적 인물로서 한 건 이상의 살인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먼저, 『화요일 밤의 여자』에 등장하는 36세의 미모의 여의사 민초혜는 사업실패에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시도한 남편을 목격하고서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직접 살인을 자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방치 자체가 살인에 준하는 것인 만큼 이 행위로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협박을 당하지만, 그녀는 갖은 방법을 써서 자신의 삶을 안온하게 지켜낸다. 죽음을 방조하거나,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앞 소설의 여성 범죄자와 달리 김성종의 『부랑의 강』 『부랑의 강』(1979)과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1978~79)의 여성들의 살인은 의도적이며, 그 방법이 잔혹하다. 예를 들자면 『부랑의 강』에서는 남편의 불륜에 분노한 사십 대 중반의 여성이 살인범죄자로 등장한다. 그녀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그대로 두고, 남편의 내연녀인 여대생을 엽기적인 형태로 살해한다. 그리고 『갈 수 없는 나라』의 여성 살인범 채나영은 성공을 위해 두 건의 연쇄살인을 계획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물론, 갖태어난 자신의 아이까지 죽인다. 이처럼 이들 세 편의 소설에서 여성들은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살인을 자행하는데 그 행위에 이르는 그녀들의 심리는 차가우며, 증오에 가득 차 있다.

①남편은 살릴 수가 있었다. 더구나 민초혜는 내과 의사이다. 남편은 극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다가 조금씩 먹던 수

면제가 날이 갈수록 효과가 없자 치사랑에 달할 정도의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이다. 아니 그가 왜 치사랑 정도의 수면제를 먹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중략) 응급가료를 해야하는데도 민초혜는 알 수 없이 끊어 오르는 질투 때문에 손을 쓰지 않았다.<sup>31)</sup>

②蘇양의 얼굴은 예리한 흥기에 찢겨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가슴과 복부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부까지 도려져 있어서 시체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sup>32)</sup>

③그와의 격렬한 정사가 끝난 후 그가 지친 듯한 표정으로 따로 떨어져 누웠을 때 그녀는 담배를 집으러 가는 시늉으로 조용히 재빨리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가 의혹과 당황의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는 잠을 주지 않고 그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쏘았다. 연거푸 두 번,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그는 누운 자세 그대로 총을 맞고 두어 번 꿈틀하고는 더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sup>33)</sup>

예문 ①은 『화요일 밤의 여자』에서 살인범죄자 민초혜가 수면제를 먹고 죽어가는 남편 모습을 발견하고도 방치하는 장면이고, 예문 ②는 『부랑의 강』에서 양인숙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대생 소희의 사체 형태이다. 그리고 예문 ③은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살인범죄자 채나영이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김광배와 정사 후 그를 권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이다. 살인 방조, 우발적 살인, 혹은 의도적이며 계획적 살인, 어느 것이건간에 세 편 범죄소설의 여성 살인범들은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그렇다고 이들이 - 자신이 낳은 아이를 포함해서 세 건의 살인을 자행하는 연쇄살인범 채나영 조차

31) 유현중, 『화요일 밤의 여자』, 문학예술사, 1978, 43면.

32) 김성중, 『부랑의 강』, 도서출판 남도, 1979, 36면.

33) 조혜일, 『갈 수 없는 나라』, 고려원, 1982, 180면.

도 - 살인의 본능에 따라 취미처럼 살인은 자행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아니다. 이들 살인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아내의 현신을 현신짝처럼 내버리며 불륜을 자행하는 남편, 혹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남성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 상실은 물론,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사회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였던 것으로, 1970년대 말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반발한 아내들에 의한 남편 살인사건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도, 여성의 살인범죄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도 아니다.<sup>34)</sup> 그렇다면 이 세 편의 범죄소설은 왜, 어떤 이유로 이처럼 동일한 시기 공통적으로 살인범죄자의 자리를 여성에게 내준 것일까. 이 세 편의 범죄소설의 작가가 모두 남성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이 세 명의 남성 작가 중 김성중은 범죄소설 전문 작가로, 이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발표된 자신의 수많은 범죄소설에서 살인범죄자, 사건의 해결자 모두 남성으로 설정할 뿐 여성 등장인물에게는 어떠한 주체적 의지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범죄소설에서, 비록 살인이라는 파괴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남성 및 상황을 통제하는 파워풀한 존재로서 여성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적어도 살인이라는 치명적 범죄는 남성의 영역으로서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5)</sup>

34) 2002년에 강력범죄의 여성비는 17.3%로 전체형범범죄, (19.5%)나 재산범죄(24.3%)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강력범죄의 여성비는 1970년에 15.8%, 1980년에 10.1%로,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여성범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현희, 전영실의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교정연구』 26, 2005, 8면)을 참조했음)

35) 여성연쇄살인범 연구자인 Adler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가 범죄에 미친 영향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어떤 분야에서도 범죄 분야만큼 ‘공정’이라는 명칭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모든 역사적 시기와 지리적 지역에서 여성의 범죄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와 함께 변

#### 4. 위기의 남성들, 분노하는 여성들

1970년대 말 발표된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 등장인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인 범죄자로 등장한 이유를 규명에 있어서 김성중의 『부랑의 강』은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된다. 『부랑의 강』의 여성범죄자 양인숙은 범죄 대상, 범죄 방법 등에서 나머지 세 편의 소설 속 여성 범죄자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일단 양인숙은 자신의 헌신과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어린 여대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 아니라, 기묘하게도 만난 적도 없는 남편의 내연녀 여대생 소희를 살해한다. 그녀는 살해에 앞서 소희의 아파트 옆집을 빌어서 3개월간 드나들며 소희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소희, 그리고 소희 가족과 친분을 쌓는 등, 소희의 삶에 가까이 다가간다. 3개월의 기간 동안 남편 연인의 아름답고도, 순수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양인숙이 느꼈을 절망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얼굴과 온몸을 난도질당한 소희 사체의 형태는 생래적으로 타고난 살인의 광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와 같은 양인숙 심적 근거 분석에 있어서, 남편 조동일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소설의 전개는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조동일이 묘사한 양인숙의 모습이다.

동일의 아내 양인숙은 남편을 위해 빈틈없이 봉사하는 여자다.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태도가 오히려 동일에게 일으키게 하는지도 모른다. 완전무결한 곳보다는 어느 정도 결점이 있는 때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지가 않다. 그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아도 좋으리 만큼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구석구석마다 그녀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중략) 아침에 눈을

---

화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Adler, F.의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New York: McGraw Hill, 1975, p.85)을 참조함

뜨면 아내는 언제나 먼저 일어나 있다. 언제나 깨끗한 차림에 곱게 화장을 하고 그를 위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항상 새색시처럼 꾸미고 있다. 아내의 그러한 모습은 꼭 인형같다. 사실 아내의 그 인형같은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예쁘게 생긴 인형에 싫증이 났고, 이제는 보기조차 싫어진 것이다.<sup>36)</sup>

소설에서 양인숙이라는 인물의 특징은 조동일의 눈과 판단을 통해서만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말하자면 그녀는 목소리도, 시선도, 판단도 없이, 그림자처럼 소설에서 존재할 뿐이다. 사회의 참혹한 사체, 여기에 양인숙을 ‘감정 없는 인형’으로 명명하는 조동일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양인숙의 엽기적 살해행위는 “공감 능력 및 죄책감 결여와 같은 정서적 장애와 충동성 및 행동 통제 곤란 등의 행동장애”<sup>37)</sup>로 이루어진 ‘살인의 광기’ 즉, 생래적 특수성으로 자연스럽게 환원된다. 이로써 양인숙의 살해행위는 1970년대 한국 사회와 연결될 여지가 제거되어 버리게 된다. 실제로 소설에서 기묘하게도 조동일은 비극적 사건의 유발자 즉,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한 마디의 자기변호 없이 사형당함으로써 아내의 범죄를 대신 짊어진 책임감 있는 가장, 최애(最愛)의 사랑을 상실한 비극적 남성상으로 화하여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이처럼 조동일이라는 인물이 미화되면 될수록, 남편의 애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되는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양인숙은 당연히 구원의 여지가 없는 ‘냉혹한 살인마’로 악마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동일의 입장에 중심을 둔 전개에서 한 발 떨어져서 소설을

36) 김성중, 『부랑의 강』, 남도출판사, 1979, 25면.

37) 이지후,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의 한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1면.

들어다보았을 때, 『부랑의 강』을 읽고 있는 작가 시선과 인식의 편파성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소설에서 조동일은 내연녀 소희의 죽음으로 인해 극도로 상처받고 절망한 듯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의 사랑의 깊이는 별반 깊지 않다. 조동일은 성공한 중년 남성 일반의 세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소희와의 관계 역시 그 세속성에 기반해 있다. 고가의 명품 선물, 학비 제공 등의 ‘자본’의 힘이 이들 간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의 본질을 그럭저럭 파악할 수 있다.<sup>38)</sup> 말하자면 조동일의 불륜은 성공한 중년 남성 일반이 겪는 권태감, 무력감에서 비롯된 일탈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이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아내 양인숙에 대한 그의 편협한 발언의 진정성도 의심될 수밖에 없다. 결혼 20년 동안 매일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정갈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랑의 강』에서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남편의 외도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양인숙의 갈등, 고통의 서사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반면, 조동일의 외도는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로 묘사되고 있다. 김성중은 이미 『부랑의 강』보다 일 년 앞서 발표된 『제5열』에서도 이처럼 불평등한 구도로 남녀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제5열』에서 주인공 최준은 아내를 둔 기혼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정사를 나눈다. 결혼의 신성성을 무시하고,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계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자면 『제5열』의

38) 김려실은 <미워도 다시 한번> 분석에서 주인공 신호를 두고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전문지식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부자이고 그의 출셋길은 교육으로 인해 열린”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들은 고도경제성장기 새롭게 등장한 인물유형이자, 당시 사회에서는 익숙한 서사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동일 역시 “출셋길이 교육에 의해 열리고” 전문지식으로 부를 축적하여 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간 인물로 그의 외도는 이 숨겨진 여정의 정점에서 생긴 권태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려실, 『한국영화결작선』 <미워도 다시 한번> : 8월의 영화, 『KMDB』, 2019. 8. 1. <https://www.kmdb.or.kr/story/10/5244>, 2025. 06. 25.)

유부남 최준과 『부랑의 강』의 조동일은 동일한 인물 유형으로, 이들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존립해 온 익숙한 남성형이었다. 예를 들자면 1968년 ‘한국영화 사상 최대 관객동원 기록을 깼’<sup>39)</sup>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도 헌신적 아내를 두고,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진 중년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지만, 아내는 그에게 여전히 헌신하며, 그의 행위는 별다른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1970년대 말의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전근대성을 벗어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가부장적 유교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힘을 지닌 탓에 일부다처제가 공공연하게 승인되고, 남성의 외도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남편의 공공연한 외도를 수용하는 대신, 살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극렬하게 드러내는 『부랑의 강』의 양인숙의 모습이 충격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인숙은 1960~70년대 지속적으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인기를 끈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sup>40)</sup>에서 제시된 전통적 여성상, 예를 들자면 남편의 외도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외도로 낳은 아이를 거두는 순종적이며, 헌신적 면모의 여성상과는 다르다. 그녀는 순종 대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가부장적 유교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들고있는 것이다. 남편에 대한 헌신을 두고, 주체적 의견이나 감정이 없는 ‘인형’같다고 폄하하는 이기적 남편에게 양인숙은 침묵하는 대신 살인이라는 파괴적이며, 치명적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자면 모두의 삶을 파국으로 이끈 것은 조동일, 즉, 가부장

39) 김려실, 앞의 글.

40) 〈미워도 다시 한번〉은 1968년 개봉되어 관객동원 37만이라는 1960년대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기록을 남긴다. 이 인기에 힘입어 1971년까지 해마다 거의 같은 출연진으로 한 편씩 모두 4편이 제작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 이후 1980년에 변장호 감독으로 바뀌어, 〈미워도 다시 한번 '80〉이 개봉되어 36만 명이나 되는 관객동원에 성공하였다.

적 유교 이데올로기에 젖은 한국 남성 일반, 정확하게는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용인되고 있던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인숙의 서사 덕분에 『부랑의 강』은 느슨한 추리 구조, 지나친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한국 사회비판을 담은 ‘사회과 범죄소설’로서 평가받을 여지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양인숙의 서사 덕분에 『화요일 밤의 여자』와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여성 등장인물 자행하는 살인이라는 치명적 범죄행위 역시 개인의 생래적 특수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환원되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 두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 범죄자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키워드를 『부랑의 강』의 여성 살인범죄자, 양인숙의 서사와 연결시키는 순간, 이 세 편의 범죄소설 속 여성들의 살인행위는 개인적 특수성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화요일 밤의 여자』의 민초혜는 의사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사로서, 결혼 생활 십 육 년에 달하지만 아이도 없고, 이름난 플레이보이였던 남편으로 인해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는 상태였고 『갈 수 없는 나라』의 채나영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톱 모델의 위치로 올라섰지만, 약점을 잡고 그녀의 육체를 요구하며 협박하던 남성들로 인해서 삶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였다. 이 지점에서 이들은 침묵하며 인내하는 대신,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인지에서 분노를 이끌어낸 후, 그 분노를 살인이라는 치명적 행위로 표출해낸 것이다. 그녀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 사회적 현실에 대한 명확한 자각에서 기인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마침내 살인을 자행하는가 하면(『부랑의 강』),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화요일 밤의 여자』), 살해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격렬한 정사를 상대 남성에게 제공할 정도로(『갈 수 없는 나라』) 그녀들의 ‘분노’는 차갑고도 깊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편의 범죄소설을 창작한 남성 작가들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몰락과 여성들의 사회적 등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부랑의 강』에서 양인숙의 헌신성, 순종적 면모가 ‘인형’이라는 말로 희화화되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 즉, 여성에 대한 피상적이고도, 왜곡된 작가의 시선이 나머지 두 편의 작가들에게서 반복되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화요일 밤의 여자』에서 전문직 여성 민초혜는 남성들과 쉽게 정사를 즐기는 부도덕한 인물로서, 그리고 『갈 수 없는 나라』에서 톱 모델 채나영은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도 살해하는 냉혹한 인물로서 부정적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이들 남성 작가들이 자신들의 소설에서 여성 살인범죄자들을 주체성도, 모성도, 정조개념도 없는 그저 내면이 텅 빈 왜곡된 존재로서 그려낸 탓에, 그녀들이 행하는 살인이라는 치명적 범죄는 이 텅 빈 내면의 문제, 즉 본래적 결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환원되어 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 남성 작가들이 남성 중심적 사회 흐름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성들을 왜소하고 비루한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들 남성 작가들은 자신들의 소설에서 여성의 자기실현 의지를 방탕함, 모성 부재로 왜곡시키며 폄하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어온, 살인이라고 하는 파괴적이고도 강력한 파워를 여성 등장인물들에게 부여할 정도로 새롭게 등장해오는 여성들의 힘에 위기감과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위기,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1970년대는 여권신장과 관련한 명확한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변화를 보자면,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여성 해방운동 실천요강’이라든가, 전통적 여성교육의 무용화와 같은 급진적 논의들이 언론에 게재되고 있었고,<sup>41)</sup> 세계 여성해

41) 교과서 차별용어 철폐 등,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전면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실천 제시를 골자로 한 「여성권리 신장율」, 『매일경제』, 1974. 9. 16. 이라든가, 시집 잘 가기 위해 대학에 가는 여성들을 빗대어 여성교육무용론을 주장하는 이화여대 교수 안인희 「시집 잘 가기 위해 대학 간다」, 『매일경제』, 1975. 2. 14. 논설을 통해 짐작 할 수 있다.

방의 해인 1975년에는 시몬 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가 한국어로 첫 번 역 소개된다.<sup>42)</sup> 이에 대항하듯 1976년에는 인고히는 이상적 아내를 주제로 한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발표되어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고, 1977년에는 당시 인기 배우를 기용한 동일 제목의 영화까지 상영된다.<sup>43)</sup>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족법이 원안의 수정형태로 1977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고조된다.

수정안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권과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한 가족법 원안과는 거리가 컸기에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는데<sup>44)</sup> 여기에는 가부장적 유교 이데올로기의 존속을 주장하던 성균관 유림의 의지, 보수적 한국사회의 인식이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었다.<sup>45)</sup> 이처럼 세 편 범죄소설이 발표된 1978-79년은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오고, 가부장적 유교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존립을 주창하는 전통적 세력이 이 움직임에 강하

42) 한국여기자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여성중앙』 부장을 지낸 서재숙이 정음사를 차려, 첫 작품으로 출판한 것이 바로 시몬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이다. 영어 원제는 『*The Woman Destroyed*』로 번역자는 소설가이자 서울대학교 불문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오정자였다. 이 책은 출판과 더불어 여성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매일경제』 (1975. 11. 27.과 12. 22.) 기사를 참조했음)

43)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1976년 4월 15일에 발매되며, 가사는 아내의 헌신, 희생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당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한진희, 정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역시 무너질 위기의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절절한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다.

44) 가족법법안은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74년 9월 28일로 성균관대 유림을 비롯한 보수적 한국사회와의 큰 충돌 끝에, 1977년 개정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개정안은 원안의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 폐지’등을 제외한 후, ‘남녀상속권 차별완화’,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부여 등 제한된 형태를 담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77년 12월 10일자 기사를 참조했음

45)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남녀상속권, 이혼배우자 재산분할권’ 등, 가족법수정안을 두고, 언론 기사에서 ‘良俗과 여권사이의 한계고심’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여권(女權)에 비우호적이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게 누르려고 하고 있던 때였다. 『부랑의 강』을 비롯한 세 편의 범죄소설에서 감지되는, 세 남성 작가들의 위기감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연동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현중, 조해일, 김성중 이 세 명의 남성 작가들은 자신의 시대를 덮어오는 여권신장의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작가적 성실함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바, 소설에서 여성 살인범죄자의 등장이야말로 그 인식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1960년대 이가형 등이 던진 한국범죄소설의 정체성 관련 발언, 말하자면 범죄소설의 존립과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일치화시킨 발언의 힘은 197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긴급조치, 군부독재, 검열’로 채워지고 있던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범죄소설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사회 비판을 감행할 수 있는 유효한 문학장르로서 채택되고 있었다. 1970년대가 끝나가던 무렵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설의 언급, ‘범죄 자체가 하나의 반항’이라는 단언은 그 자체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범죄소설에 부가된 제 역할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막중한 역할을 짊어진 범죄소설 작가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말 한국 범죄소설은 명확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1978년과 1979년 사이에 발표된 세 편의 범죄소설- 이중 두 편의 경우, 앞서 동아일보 사설에서 사회비판 소설로서의 범죄소설의 역할을 담당할 작가의 작품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바-은 이 시기 범죄소설에 부가된 의무와 이들이 지닌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현중의 『화요일 밤의 여자』에서는 서울대를 휴학한 고학생이 범죄자로 등장하여 한국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그의 삶과 독백에 가까운 발언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고, 조해일의 『갈 수 없는 나라』 역시 서울 명문대 법

대 재학 중이던 고학생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영화조차도 ‘정권이 원하는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던 1970년대 엄혹한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현종과 조해일이 범죄소설을 통해 이룬 이 정도의 성과도 놀라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성과를 행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남성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범죄소설에서 남성 중심적 태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유현종과 조해일의 소설에 더하여 김성종의 소설에서도 여성은 근원적으로 무지하거나, 방탕한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당대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연결되지 못한 채 언제나 그 여성인물들이 지닌 생래적 광기의 소산으로서 귀결되게 된다. 여성에 대한 이들 세 남성 작가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이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일단은 이들 남성작가들이 -조해일 경우 『겨울여자』에서 여성의 새로운 성모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추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위계질서에 기반한 폭력적 군사문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세계로 스며들어 내면화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들 남성 작가들의 남성 중심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세 편 중 두 편의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살인이라는 치명적 범죄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한 후 완전범죄에 성공한다. 사회비판 범죄소설의 기대작가로 언론을 통해 지정된 두 명의 작가, 조해일과 유현종의 소설의 여성 살인범들은 송고한 이상 속에서 범죄를 행한 남성살인범들이 모두 법의 처단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범망을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이다. 물론 김성종의 『부랑의 강』 경우, 양인숙의 완전범죄의 마지막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지만, 그녀는 자살로서, 법체제를 벗어나 버린다. 이처럼 남성작가들이 창작한 범죄소설들, 엄격하게 말해서 세 편

중, 두 편의 범죄소설에서 여성살인범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현실을 제공한 남성들을, 살인이라는 치명적 행위로 제압한 것은 물론 완전범죄에 성공하여 마지막까지 생존한다는 점은 남성작가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사회 전면에 등장하는 여성의 파워와 그들의 미래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하서추리선서(河書推理選書)』  
(1978), 『Mysyery』 1호(1974. 12.)
- 김성중, 『부랑의 강』, 남도, 1979
- 유현중, 『화요일 밤의 여자』, 문학예술사, 1978
- 조해일, 『갈 수 없는 나라』, 고려원, 1982
- 마쓰모토 세이초 지음, 양억관 옮김, 『제로의 초점』, 이상북스, 2011
- 모리무라 세이치 지음, 강호걸 옮김, 『인간의 증명』, 해문출판사, 2003

2. 논저 및 논문

- 김려실, 「한국영화결좌선미위도 다시 한번 : 8월의 영화」, 앞의 글, 『KMDB』, 2019.  
8. 1, (<https://www.kmdb.or.kr/story/10/5244>, 2025. 06.25.)
-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2012, 42-90면.
- 안혜연, 「'정상가족' 만들기와 아내들의 자리 —1970년대 후반~80년대 한국추리소설  
속 여성범죄자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2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3,  
37-67면.
- \_\_\_\_\_,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한국 범죄소설 붐과 그 사회적 맥락」, 『인문과학  
연구』 25,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93-234면.
- 이지후, 「사이코패스 성향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의 한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과 석사학위논문, 2015, 1쪽.
- 이현희·전영실,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교정연구』 26, 한국교정학회,  
2005, 57-80면.
-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 275-302면
- 정혜영, 「김내성변격탐정소설과 환상의 영역」, 『국학연구론총』 29, 2022, 241-263면
- 정혜영, 「1920년대 조선과 연쇄살인범으로서 여성의 등장 - 최독견의 「난영(亂影)」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3), 2022, 153-179면
- 최애순,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한국학』 32(2), 2009, 165-191면
- 최애순, 「1970년대 동정적 범죄자와 법적 처벌 문제 — 김성중의 단편소설과 장편 『

- 최후의 증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98, 37-72면
- 최애영, 「김성종의 제5열-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대중서사연구』 23, 2012, 125-158면
- 郷原宏, 『清張とその時代』, 双葉社, 2009
- Adler, F.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 New York: McGraw Hill, 1975
- Caroline Reitz, *Female Anger in Crim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Abstract>

## Murderous Women in 1970s Korean Crime Fiction

Jung, Hyeyoung

In 1978, during a period in which Korea was experiencing rapid economic growth and a strong societal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three crime fiction depicting women as perpetrators of murder crimes were simultaneously published. Given the long history of crime fiction, the appearance of women as murderers was not a new phenomenon. However, while it may have been common in the history of Western literature, it was still rare in Korean novels for women to appear as central agents of such extreme and deadly acts as murder. In this regard, the paradoxical situation found in crime fiction—where the era's call for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intersects with the emergence of female murderers—is worth noting.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ssue of "women's anger" in late 1970s Korean crime fiction, focusing on three works featuring female murderers: *Tuesday Night's Woman* by Yoo Hyun-jong, *River of the Vagabond* by Kim Seong-jong, and *A Country I Cannot Go To* by Jo Hae-il. The research explores the motivations and reasons behind the intense anger that led these women to commit murder. Why were women in 1970s Korean crime fiction driven to such extreme acts of anger? If crime itself can be seen as a form of rebellion, what aspects of Korean society were these women protesting through the ultimate crime of murder? The study analyzes these themes through the aforementioned

three Crime fiction. In addition to Yoo Hyun-jong and Jo Hae-il's works, Kim Seong-jong's novel also portrays women as inherently ignorant or promiscuous beings. Consequently, the crimes of murder committed by these female characters are depicted not as responses to societal injustices but as manifestations of their innate madness.

Key words: rapid economic growth,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Woman on a Tuesday Night*, *River of Vagabond*, *The Country I can't Go To*, female murderer, Crime fiction, female anger, patriarchal Confucian ideology, male-centered military culture

투 고 일: 2025년 5월 26일

심 사 일: 2025년 6월 10일

계재확정일: 2025년 6월 24일

수정마감일: 2025년 6월 28일